

## 에너지, 무역에 관한 대화를 위한 주수상의 여정

2022년 8월 26일 미디어 문의

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정부 및 업계 리더들을 만나 알버타 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

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절단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수상이 원자력, 수소, 자동차 부문의 대표들, 정부 관리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

“알버타와 한국의 유대 관계는 강력하고 확고합니다. 우리는 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를 세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, 그들을 위한 시장 다각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전 세계가 에너지 불안정을 겪고 있을 때, 우리의 최고 무역 파트너들 중 하나인 한국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우리는 에너지와 관련하여,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동맹들 간의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.”

*제이슨 케니, 주수상*

주수상과 알버타 대표단은 한국의 리더들과 만나,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,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

2021년 11월 알버타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, 여러 알버타 및 한국의 이해 당사자들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.

주수상은 또한 알버타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 생산자임을 거듭 강조할 것입니다.

두 명의 직원들과 다음의 사람들이 주수상을 동행할 예정입니다:

- 제럴드 치퍼 (Gerald Chipeur), 주 캘거리 대한민국 명예 영사 및 밀러 탐슨 유한 책임 파트너십 (Miller Thomson, LLP) 파트너
- 릭 크리스티안스 (Rick Christiaanse), 인베스트 알버타 코퍼레이션 (Invest Alberta Corporation) 최고 경영 책임자
- 전순중 (Sunjong Chun), 씨케이비씨 주식회사 (CKBC Inc.)

치퍼와 전순중씨는 자신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할 것입니다. 사절단에 드는 비용은 [여행 및 경비 공개](#) 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.

알버타 정부는 알버타와 전 세계 사람들 및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의 이해 관계를 증진시키고자, 국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## 간단한 정보들

- 한국은 알버타의 다섯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.
- 2021년 알버타는 약 6억 6,82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한국에 수출했습니다. 주요 수출품은 육류 (주로 쇠고기, 1억 4,000만 달러), 니켈 (1억 2,270만 달러), 목재 펄프 (1억 540만 달러), 에너지 (주로 석탄, 9,850만 달러), 지방 및 기름 (주로 카놀라유, 6,640만 달러)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같은 해에 알버타는 약 2억 93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. 주요 수입품은 기계 (5,030만 달러), 전기 기계 (4,600만 달러), 플라스틱 (3,170만 달러)이었습니다.
- 알버타는 무역, 투자, 양자 협력을 포함하여, 한국과 강력하고 상호 유익이 되는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알버타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.

## 케니 주수상의 여행 일정\*

- 8 월 27-28 일 • 서울로의 여정
- 8 월 29 일 • 포스코 홀딩스와의 만남  
• 현대 엔지니어링과의 만남
- 8 월 30 일 •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의 만남 및 연구 개발 센터 견학  
•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과의 만남  
• 현대 자동차와의 만남
- 8 월 31 일 •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 
•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만남  
• 서울을 떠남

*\*변경될 수 있습니다.*

## 미디어 문의

**저스틴 브라팅가 (Justin Brattinga)**

780-203-0177

주수상실, 언론 사무관